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8. Vol. 29. No. 2 pp. 35~67.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8.29.2.35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연구: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이정민** · 정혜원***

초 록

본 연구는 팬덤활동 참여와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 4차~7차년도(2013년~2016년) 4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기대되는 배경변인과 개인 요인의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경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팬덤활동 참여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집단(통제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였다. 동등성이 확보된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개인차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덤활동 참여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팬덤활동 미참여집단보다 더 높은 학교생활적응의 성장을 나타냈다. 즉,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적응 변화에서는 초기치가 더 높았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 휴대전화의존도, 부모의 애정, 부모의 과잉간섭,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 공동체의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 관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팬덤활동, 학교생활적응, 경향점수 매칭, 다층성장모형

* 제 7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Ⅰ.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문화 활동으로서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문화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민우, 이나영, 2009). 팬덤활동이란 특정 대상, 즉 선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상대로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정재민, 2010).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여 빠져든 사람과 그러한 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창남, 1995). 특히 청소년기는 역할 모델을 부모가 아닌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시기이다(최미원, 조현희, 김영아, 2016). 이때 청소년들은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역할 모델로서 대중 스타를 선택한다(조아미, 1998). 이러한 선택으로 자신이 동경하는 연예인의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우상화를 통해 가치관 및 신념까지도 모방하게 된다(신정이, 황혜원, 2006). 하지만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관심의 표현이 다양해짐에 따라 팬덤활동 참여는 긍정적 자기발전과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소속감 및 대인관계의 질을 높였다(임영식, 2002). 즉,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을 문화실천의 주체자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가능하다(김용석, 2011). 이에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환경변화를 이루고, 그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하기도 한다(곽수란, 2006).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하여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의 규칙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된다(김희수, 윤은종, 2004). 또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안에서의 생활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교사 및 교우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여 만족하게 만든다(윤은종, 김희수, 2005). 하지만, 급격한 신체변화와 정서적 불안정을 겪는 청소년 모두가 학교에 완벽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는 청소년은 등교시간 준수나 질서 및 규칙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청소년의 불안정한 교우 및 교사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였다(전

재일, 전현주, 2007). 결국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한다는 것은 사회 적응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과정이며(김금순, 김은미, 2015), 현재와 이후 성인기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박기원, 2014).

실험연구 실행이 곤란한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상경아, 2009). 즉, 팬덤활동 참여 피험자들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할당 할 수 없으며, 무선할당이 불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 편의를 통제하여 인과적 설득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팬덤활동 참여효과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팬덤활동 참여 이외에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인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한 시점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횡단 연구는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과 개인의 내적・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과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선택 편의 제거를 위해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사용하여 팬덤활동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의 특성을 동등화 한 후,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2수준 다층성장모형(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1부터 고1에 이르기까지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개인 및 가정, 지역사회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1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개인 및 가정, 지역사회 요인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개인 및 가정, 지역사회 요인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팬덤활동

팬덤(fandom)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나 현상을 공유하는 것이며, '대상을 열정적, 광적으로 추종한다'는 'fanatic'의 'fan'과 집단적 증후군을 뜻하는 'dom'이 합성된 복합어다(정재민, 2010). 어원의 의미와 같이 팬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밑바탕으로 팬덤문화는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이해하며, 현실을 회피하는 집단적 세력으로 인지되기도 한다(김고운, 김정운, 박정열, 2009). 이러한 경향으로 팬덤문화 및 활동을 일탈과 중독 현상의 부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였다(전수아, 한윤선, 2016).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전과 같은 스타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모습과 달리 스타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팬덤의 성장을 이루었다(임재민, 김대현, 2016). 오늘날 팬덤문화는 청소년의 고유한 문화로 재조명되고 있기에 문화의 생산적 측면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Fiske, 1992).

1980년대를 지나 2000년대부터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팬클럽, 즉 팬덤이 형성되었다(정재민, 2010). 청소년들은 팬덤 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조적・조직적 관계의 집단적 성격을 보인다(베르기디에 마티유, 조영한, 2017). 최근 팬덤활동은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공동체적 성향과 가치를 실현한다(박신의, 2012). 이는 국제적으로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한류문화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안은미 외, 2012).

이와 다르게 팬덤은 사회 안에서 가치를 허용 받지 못할 때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김석기, 서경화, 2011). 청소년들은 스타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정재민, 2010). 김고운 외(2009)에 따르면, 스타의 생활 전반을 소유하려는 사생팬의 행동은 지나친 애정과 강박적 태도를 보이는 팬덤문화의 일탈현상이

며, 이와 같은 극단적인 팬덤문화가 지속될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과도한 집착의 부정적 양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정재민, 2010). 따라서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학교생활에 적응한다(정미영, 문혁준, 2007). 또한 청소년은 팬덤활동의 주축이며 제도교육 내에서 성취 불가능한 욕구를 획득하는 데 대중문화를 활용한다(조은하, 2007). 팬덤활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청소년에게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손경순, 2015). 무엇보다도 스타에 대한 우상화가 과도한 청소년들은 학업 및 학교생활에 무성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임영식, 오세진, 2000). 중학생의 경우 스타의 우상화 정도가 큰 집단은 우상화 정도가 작은 집단보다 학교규칙의 불이행 및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보였으며(조영임, 이숙, 2011), 온・오프라인의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였다(안은미 외, 2012; 조안나 외, 2016).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과 달리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은 팬덤활동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억눌린 감정 표출,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룸으로써(전종희, 2005), 가정 내 갈등이나 학교생활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식처를 얻는다(이윤정, 박성옥, 2001). 또한, 청소년들은 팬클럽 내 다양한 연령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집단생활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소은경, 2004). 팬덤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연구를 실시한 한혜정(2016)은 컨텐츠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수동형' 집단이 스타와 접촉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소통형' 집단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스스로 학습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팬덤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에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팬덤활동 참여 영향요인

팬덤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히 적은 수의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팬덤활동 참여의 배경특성과 개인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팬덤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팬덤활동은 상류계층보다 중하류의 계층이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김고운 외, 2009),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중1 학생의 팬덤활동 참여 변화는 저소득 집단이 고소득 집단보다 높다고 보고되었다(황진구, 허효주, 2014). 성별도 팬덤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팬덤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외, 2000; 조영임, 이숙, 2011).

이와 함께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 요인이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팬덤활동에 더 적극적이며(김선숙, 2013), 또래관계에 있어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동일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역할모델을 추구하게 된다(조영임, 이숙, 2011).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팬덤활동과 부적관계를 지니고 있으며(나재은, 2017), 낮은 삶의 만족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팬덤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숙, 2013).

앞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팬덤활동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차이는 팬덤활동 참여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팬덤활동 참여와 미참여 학생 사이에 이미 지니고 있던 배경특성 및 개인 요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팬덤활동 참여의 인과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되었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팬덤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 편의를 통제하는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4.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작한 중1부터 고1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청소년기, 즉 중학교 입학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김진아, 2016), 오히려 감소하는 학교생활부적응의 발달궤적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김현숙, 2015)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며 개인차가 발생함을 의미한다(전재일, 전현주, 2007).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환경 내 학교생활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들을 개인, 가정,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경상(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부적응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4년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좌현숙(2012)의 연구에서는 초기시점뿐만 아니라 시간 증가의 변화시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문은식(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의존도는 학교생활적응과 부정적 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근순, 김은미, 2015). 미디어 매체로서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태도뿐만 아니라 학업적 부적응을 초래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정숙, 명신영, 2007). 이와 달리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는 높게 나타났다(김채환, 2015).

한편,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관계의 토대이며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현, 2008). 부모의 애정은 자녀의 학습활동과 관련 되며(노미화, 최미정, 최연실, 2015), 애정적・합리적인 부모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와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의식 강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이희정, 2015).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최영임, 문영경, 2013). 즉,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학교생활의 규칙준수와 건설적 교우

관계로 발전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영춘, 2014; 조안나 외, 2016). 또한 최근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이질적 문화가 형성되면서 다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김미진, 정옥분, 2010). 특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정도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한 오경화(2011)의 연구와 같이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또래와의 융합하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동질문화를 옹호하는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춘, 2014).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의 단편적인 면만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벗어나 팬덤활동 참여와 자아정체감, 부모-과잉간섭,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간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과 더불어 편덤활동 참여와 이들 변인 간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종단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으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패널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년도부터 7차년도,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351명 중 결측치 352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1,049명(52.5%), 여학생 950명(47.5%)으로 총 1,99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개인 및 가정, 지역사회 요인이 학교생활 적응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나타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 방법은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홈페이지 방문, 포털 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팬 미팅 참석, 경기장 가기, 선물 보내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4패널의 4차년도(중1) 자료 중 선호 연예인/ 운동선수 유무를 기초로 팬덤활동 참여 빈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더미변수(1=참여, 0=미참여) 처리하였다.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는 경향점수 산출의 처치변인이며, 두 집단을 동등하게 구성하고자 팬덤활동 참여 확률이 예측될 수 있도록 하는 공변인으로 성별(김현주 외, 2000; 조영임, 이숙, 2011), 가구연간소득(황진구, 허효주, 2014), 자아탄력성(김선숙, 2013), 삶의 만족도(김선숙, 2013; 나재은, 2017), 또래애착(조영임, 이숙, 2011) 변인을 설정하였다.

경향점수매칭 후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종단적 측정동일성(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은 반복변인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는 경우 잠재변인의 개념이 시 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이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단계에 따라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각 하위요인 당 1개의 대표 문항을 추출하여 4차~7차년도(중1~고1) 4개년에 걸쳐 반복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부록 2 참조).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측정시점, 즉 단일연도에 따라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가 적합하였다(부록 1 참조). 연구변인의 각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개별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점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변인들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종속변수 (1수준)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물어본다	4차 .676
		학교규칙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5차 .685
		교우관계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6차 .693
		교사관계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7차 .675
처치변수	팬덤활동		1=참여, 0=미참여	4차 -
경향점수 산출변인 (공변인)	성별		1=여자, 0=남자	4차 -
	가구연간소득		자연로그변환	3차 -
	자아탄력성		•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4차 .687
	삶의만족도		•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차 .837
	또래애착	의사소통	•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4차 .815
		신뢰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4차 .843
		소외	•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4차 .748
독립변수 (2수준)	개인	자아존중감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4차 .838
		자아정체감	•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4차 .733
		휴대전화 의존도	•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4차 .865

구분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가정	부모 양육	애정	• 부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부모님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 부모님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4차 .838
		과잉 간섭	• 부모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 부모님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 부모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4차 .751
지역 사회	공동체 의식		•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차 .801
	다문화 수용성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	4차 .821

* 역문항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팬덤활동 참여유무의 인과적 효과 검증을 위하여 선택 편의를 보정하고자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였다. 이후 팬덤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결합표집하고, 항목별 무응답의 결측값은 다중대체법을 이용하였으며, 중1부터 고1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변화에 있어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1) 경향점수 매칭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팬덤활동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경향점수를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는 인구학적 혹은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종단자료와 같은 비실험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등성 확보가 어려워 선택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경선, 김영식, 정소라, 2014).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동질화시켜 처치효과의 추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민경석, 2008).

다양한 경향점수 매칭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Rosenbaum과 Rubin(1985)이 제안한 최대경향점수 거리의 허용수준을 부여하는 캘리퍼 매칭(caliper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팬덤활동 참여의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을 구성하는 개체의 경향점수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설정된 최대거리의 캘리퍼(caliper)내에 있는 개체만을 통제집단(control group), 즉 팬덤활동 미참여를 이용함으로써 매칭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방법이다(박상현, 김태일, 2011). 경향점수 매칭을 위하여 팬덤활동의 참여를 처치집단(1), 미참여를 통제집단(0)으로 설정하였다. 처치집단의 편차가 통제집단의 편차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은 캘리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Rosenbaum와 Rubin(1985)이 제안한 최대 경향점수거리(caliper)를 0.25 표준편차를 선택하여 두 집단을 대응시켰다. 이 방법은 처치집단의 사례 하나가 자신의 경향점수와 같거나 전체 사례 경향점수의 표준편차의 25% 범위 내에서 통제집단의 사례 중 하나와 매칭시킨다(민병철, 박소영, 2010).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R 3.4.1을 MatchIt 패키지와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2) 결측치 처리

종단자료와 같은 설문자료의 경우 무응답 반응의 결측치가 다수 발생한다. 가장 보편적인 결측 처리방법이며 하나의 사례라도 결측된 문항이 존재할 경우 그 행의 전체 자료를 삭제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 LD)이 있다. 하지만, 완전제거법은 편의 발생 및 전체표본의 사례수보다 더 적은 사례수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야기한다(이화정, 강석복, 2012).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MI)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상호 보조변수로 활용한 EM방식의 다중대체법(MI)을 통해 총 5세트의 결측 대체된 자료(imputed data)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는 HL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

석의 통합 결과이다(Raudenbush et al., 2011). HLM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중대체 옵션의 회귀계수 추정값은 결측 대체된 자료(imputed data)의 분석 평균이며, Little과 Schenker(1995)의 방식에 의해 표준오차가 산출된다(송미영, 임현정, 임해미, 박혜영, 구자옥, 2015, 재인용). 즉, HLM 프로그램의 다중대체 옵션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총 5회의 분석결과를 통합한 방식으로 산출된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다.

3) 다층성장모형

최종 연구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와 괜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중1부터 고1까지 4개 시점에 대하여 반복 측정된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활용하였으며, 각 시점의 측정치는 각 개인에 내재(nested)된 자료 구조를 지녔다. 이에 반복 측정치들 간 자기 상관성을 모형에 반영 가능한 다층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1수준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함수를 추정하였으며, 2수준은 변화의 개인차를 추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1수준에 중1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시점을 0, 1, 2, 3으로 중심화(centering)하였다. 2수준에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초모형]

$$\text{1수준 :}\quad Y_{ti} = \pi_{0i} + \pi_{1i}(time_{ti}) + \epsilon_{ti},\quad \epsilon_{ti} \sim N(0, \sigma^2)$$

$$\text{2수준 :}\quad \pi_{0i} = \beta_{00} + \gamma_{0i}$$
$$\pi_{1i} = \beta_{10} + \gamma_{1i}$$

[연구모형]

$$\text{1수준 :}\quad Y_{ti} = \pi_{0i} + \pi_{1i}(time_{ti}) + \epsilon_{ti},\quad \epsilon_{ti} \sim N(0, \sigma^2)$$

$$\text{2수준 :}\quad \pi_{0i} = \beta_{00} + \sum_{q=1}^{k} \beta_{0q} X_{qi} + \gamma_{0i}$$
$$\pi_{1i} = \beta_{10} + \sum_{q=1}^{k} \beta_{1q} X_{qi} + \gamma_{1i}$$

위의 수식에서 Y_{ti}는 시점 t에 측정된 개인i의 학교생활적응을 의미한다. π_{0i}는 중1시점에서 측정된 개인i의 학교생활적응을, π_{0i}는 개인i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을 의미한다. ϵ_{ti}는 시점 t에 대한 개인i의 오차이며, 2수준의 β_{00}과 β_{10}은 고정효과(Fixed effect)로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을, γ_{0i}와 γ_{1i}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초기값 및 변화율 평균에 대한 개인i의 편차를 나타낸다. 다층성장모형 분석은 HLM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경향점수 매칭

경향점수 매칭에 앞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들 간 사전 특성이 서로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가구연간소득,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팬덤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매칭 전)

	참여 (처치집단, n=831) 평균	미참여 (통제집단, n=1168) 평균	평균차	t통계치
성별(여=1, 남=0)	-	-	-	15.269***
가구연간소득	8.321	8.238	.083	2.572*
삶의만족도	9.309	9.601	-.292	-3.394**
자아탄력성	9.265	9.119	.146	1.973**
또래애착-의사소통	9.521	9.325	.196	2.608**
또래애착-신뢰	9.808	9.525	.283	3.550***
또래애착-소외	8.972	8.719	.253	2.605**

*p<.05, **p<.01, ***p<.001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공변인에서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팬덤활동 참여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사전 특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으로 공변인 통제를 통해 사전 동등성을 갖춘 후 팬덤활동 참여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뜻한다(박종석, 김준엽, 2014). 두 집단 간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캘리퍼를 적용한 최근접 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팬덤활동 참여 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 집단(통제집단)에 소속된 학생 656명씩 두 집단에 동일하게 표집되었다. 그림 1은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 간 공변인의 분포를 동일하게 조정한 후 경향점수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이 공변인에 대해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에 대한 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은 최종 선정된 팬덤활동 참여집단과 팬덤활동 미참여집단 총 1,312명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공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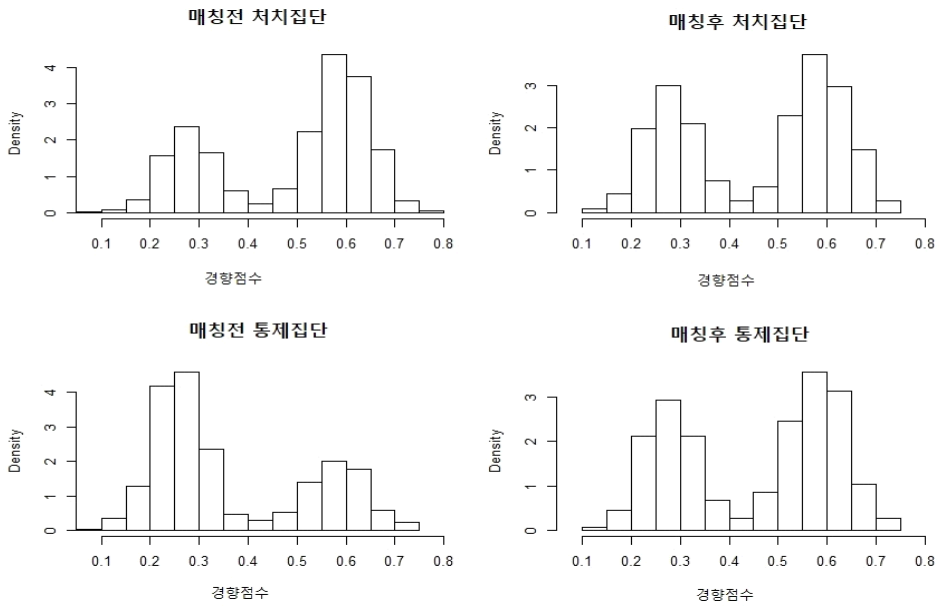

그림 1. 경향점수 매칭에 따른 경향점수 분포의 차이

표 3
팬덤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매칭 후)

	참여 (처치집단, n=656) 평균	미참여 (통제집단, n=656) 평균	평균차	t통계치
성별(여=1, 남=0)	-	-	-	-.168
가구연간소득	8.319	8.286	.033	.944
삶의만족도	9.417	9.384	.033	.314
자아탄력성	9.274	9.172	.102	1.119
또래애착-의사소통	9.512	9.484	.028	.302
또래애착-신뢰	9.797	9.722	.075	.769
또래애착-소외	8.961	8.852	.109	.923

2. 다층성장모형

1) 종단적 변화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 선형 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특히 선형 모형과 비선형 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2LL(-2 log-likelihood), 즉 편차(deviance)를 살펴본 결과 χ^2=25.996(df=3), p〈.001로 비선형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선형 모형의 변화율에서 1차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2차 항의 분산이 .06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형 성장모형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고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1 시점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의식은 평균 12.602이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평균적으로 .087 증가하여 고1시점에서는 12.863로 선형적 증가를 나타냈다.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기초모형

	구분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학교생활적응 초기치(β_{00})	12.602***	.048
	학교생활적응 변화율(β_{10})	.087***	.018
		분산	표준편차
무선효과	1수준	1.747	1.321
	학교생활적응 초기치(γ_{00})	1.877***	.798
	학교생활적응 변화율(γ_{10})	.124***	.279

***p<.001

2)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1수준은 학교생활적응의 측정시점을, 2수준은 학생수준의 팬덤활동 참여와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을 투입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표 5와 같다. 1수준(측정시점)의 분산은 1.758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치(중1) 분산은 .637, 변화율 분산은 .078로서 초기치와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는 5.91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치인 중1 시점에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은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다(β=-1.382, p〈.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β=.123, p〈.001), 부모의 애정이 많을수록(β=.160, p〈.001),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β=.252, p〈.001),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β=.083, p〈.01) 초기치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β=-.047, p〈.05),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β=-.061, p〈.001) 초기치의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적인 변화율은 .84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평균적인 변화율이 정적으로 선형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중1부터 고1까지 4년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학교생활적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예측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팬덤활동에 참여할수록 팬덤활동에 미참여하는 학생보다 변화율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β=.689, p<.05). 즉, 팬덤활동 참여 학생은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향상도가 매년 .689 높게 나타나, 결국 매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1.53(=.841+.689)씩 높아지게 되고, 고1 시점에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는 .685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β=.022, p<.05),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β=.027, p<.001) 변화율의 학교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β=-.025, p<.001),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β=-.035, p<.05) 변화율의 학교생활적응은 낮게 나타났다.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초기치	절편(β_{00})	5.914***	.536
		팬덤활동 참여(β_{01})	-1.382*	.686
		자아존중감(β_{02})	.123***	.015
		자아정체감(β_{03})	.002	.020
		휴대전화의존도(β_{04})	-.061***	.013
		부모-애정(β_{05})	.160***	.019
		부모-과잉간섭(β_{06})	-.047*	.032
		공동체의식(β_{07})	.252***	.029
		다문화수용성(β_{08})	.021	.027
		팬덤활동*자아정체감(β_{09})	-.055	.039
		팬덤활동*부모-과잉간섭(β_{010})	.083**	.029
		팬덤활동*공동체의식(β_{011})	.054	.030
		팬덤활동*다문화수용성(β_{012})	.034	.039

구분		계수	표준오차
변화율	절편(β_{10})	.841***	.257
	팬덤활동 참여(β_{11})	.689*	.329
	자아존중감(β_{12})	-.025***	.007
	자아정체감(β_{13})	.022*	.009
	휴대전화의존도(β_{14})	.027***	.006
	부모-애정(β_{15})	-.016	.009
	부모-과잉간섭(β_{16})	-.007	.009
	공동체의식(β_{17})	-.035*	.013
	다문화수용성(β_{18})	-.009	.013
	팬덤활동*자아정체감(β_{19})	-.026	.019
	팬덤활동*부모-과잉간섭(β_{110})	-.006	.014
	팬덤활동*공동체의식(β_{111})	-.018	.014
	팬덤활동*다문화수용성(β_{112})	-.001	.018
		분산	표준편차
무선효과	1수준	1.758	1.321
	학교생활적응 초기치(γ_{00})	.637***	.798
	학교생활적응 변화율(γ_{10})	.078***	.279

*p<.05,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은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적 실천을 경험하고,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자리매김하였다(임재민, 김대현, 2016). 청소년의 대중문화는 삶의 맥락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팬덤활동이 있다(정현주, 2016). 이에 대부

분 선행연구들은 팬덤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실험 연구는 팬덤활동 참여 자체의 순수한 효과 검증을 위한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곧 선택 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결과의 해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통해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선택편의를 제거한 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경향점수 매칭 분석에 앞서, 팬덤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대되는 배경변인 및 개인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팬덤활동 참여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집단(통제집단)에 따른 공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공변인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검토 한 후,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동등성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진행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간 특성의 동등성 확보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4차년도(2013) 중1부터 5차년도(2016) 고1까지 4개 시점에 걸쳐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추적과 더불어 팬덤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들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수준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이 초기치인 중1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팬덤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휴대전화의존도, 부모의 애정, 부모의 과잉간섭, 다문화수용성,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의 과잉간섭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팬덤활동 참여 학생이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낮았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안은미 외, 2012; 조안나 외, 2016; 조영임, 이숙, 2011)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팬덤활동의 과도한 몰입이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학교생활보다는 스타의 팬미팅, 스타와 관련된 영상에 몰두하기 때문에 스타에 대한 과도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정재민(2010)의 연구결과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학교 내 생활보다는 스타의 자료를 검색하고 영상을 시청하며 콘서트 티켓 예매 및 참석하기

등 온・오프라인의 팬덤활동이 일상을 차지하기에, 팬덤활동 참여의 중1 학생이 팬덤활동 미참여 중1 학생보다 낮은 학교생활적응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난 팬덤활동 참여의 중1 청소년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급의 변화로 학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과 팬덤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괴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 내 교우 및 교사관계에 원만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 학습활동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경상(2011)의 연구결과처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부적응을 낮추고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높여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학생은 불안정한 학습태도와 학업적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이정숙, 명신영, 2007)의 연구결과와 같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변인이라는 이은정 외(2012), 김근순과 김은미(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가정 요인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 존중과 애정의 관심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넘어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낮았다.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김정현, 2008),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은 그를 기반으로 긍정적 학습활동으로 이어지지만,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사고와 생각, 활동범위를 축소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김현주와 홍상황(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칭찬과 같은 지지의 표현을 할 때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학교생활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과잉간섭만을 경험한 학생보다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은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억압과 지나친 통제 및 간섭에서 오는 답답함을 팬덤활동 참여로 승화하여 부모와의 부정적 상황을 완화시키기에 더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가 과잉간섭의 양육태도를 보인 청소년은 팬덤활동 참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억압된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 학교생활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

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의 과잉간섭이라는 단편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요인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영춘, 2014; 오경화, 2011)와 일치하였다. 이는 다문화 수용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타문화에 대해 이타적이기에 학교생활에서도 열린 사고와 마음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을 검증한 결과, 팬덤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덤활동 참여에 따른 변화가 양의 수로 나타났으며 팬덤활동 참여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증가폭이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생활적응과 팬덤활동 참여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효과를 동시에 해석해야 한다. 팬덤활동에 참여한 경우 초기, 즉 중1시점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음의 수로서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1 시점에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은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덤활동 참여가 정서적 위로와 스트레스 해소 계기를 마련해 주며(전종희, 2005),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면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안나 외(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팬덤활동 참여의 영향력이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팬덤활동 참여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즉 중1시점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율의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나 팬덤활동 참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팬덤활동 참여가 초기 시점과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팬덤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학습하고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이다.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감소시켰지만, 자아정

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증가시켰다. 또한,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증가시켰다. 이처럼 청소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교우관계를 확대하고 학교생활적응을 높게 한다(김채환, 2015)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은 공동체의식이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낮췄다.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학교 내 규칙준수와 건설적 교우관계를 형성시킨다는 선행연구(김영춘, 2014; 조안나 외, 2016)와 불일치한 결과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초기 학교생활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 변화율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감속시켰다. 이는 자아중감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이미 학교생활적응의 값이 높기 때문에 그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급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청소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청소년의 개인 요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높고 낮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애정과 부모의 과잉간섭,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의 과잉간섭의 상호작용의 가정 요인들은 초기치에서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지만,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팬덤활동 참여와 자아정체감, 팬덤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팬덤활동 참여와 다문화 수용성은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단위 대규모 패널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1 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학생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무선할당이 불가능한 종단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 편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실시한 후,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 초기에 낮은 학교생활적응과 다르게 학교생활적응

성장이 증가함으로써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과거와 다르게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그 규모와 활동면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팬덤활동 참여자들은 팬클럽 자체에서 실시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된 숲 조성하기, 스타와 함께 기부하기 등(뉴스포스트, 2016.9.7; 비즈니스리포트, 2017.5.18.)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을 학습한다. 이러한 활동 참여는 다양한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며, 의사소통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학습하기에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과도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팬덤활동 참여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벗어나 공통의 주제와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편견, 즉 청소년만의 독득한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팬덤활동 참여를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분야에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두루 겸비한 인재로서 발전하기 위한 역량함양의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팬덤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보며, 이들의 역량과 팬덤활동 참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의 다채로운 연구를 축적하여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는 후속연구의 진행의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팬덤활동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이 가능한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현장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이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변인을 고려하여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팬덤활동 참여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 누락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사전 동등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못하여 편향된 추정치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휴대전화 유무에 따른 집단의 차별적 영향력이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패널자료의 그 특성상

제한적인 문항과 요인이 측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인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팬덤활동 참여 활동의 소요시간, 에너지, 영향 등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수준과 참여 빈도 등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다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팬덤활동에 관한 양적·질적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김경선, 김영식, 정소라 (2014). 경향점수 매칭과 재발사건생존분석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직업유지 효과 분석. **장애와 고용, 24**(1), 83-109.

김고운, 김정운, 박정열 (2009). 팬덤 속 여가 즐기기: 1 인 미디어 운영자들의 팬활동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6**(3), 85-116.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김미진, 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김석기, 서경화 (2011). 스포츠 팬덤문화의 여성화. **한국체육철학회지, 19**(1), 61-75.

김선숙 (2013). 청소년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167-176.

김영춘 (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21-331.

김용석 (2011). 팬클럽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2**(1), 101-142.

김정현 (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161-183.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김창남 (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

김채환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서언론, 17,** 59-96.

김현숙 (2015). 한부모가족의 소득, 양육태도, 교육적 지원,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5,** 49-97.

김현주, 임영식, 오세진 (2000). 청소년 우상화 현상과 예측변인, 학교생활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12**(1), 31-52.

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김희수, 윤은종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93-115.

나재은 (2017).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396-405.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뉴스포스트 (2016.9.7). 기부계 '큰손' 팬덤문화의 진화.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0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민경석 (2008). 자아 존중감에 대한 경향점수를 이용한 평준화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1**(3), 1-21.

민병철, 박소영 (2010).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성향점수 매칭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교육, 37**(1), 147-165.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1), 1-15.

박상현, 김태일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0**(4), 277-307.

박신의 (2012). 한류 글로벌 팬덤 현상을 통해 본 문화소통 및 교류의 전망. **문화예술경영, 2**(2), 23-37.

박종석, 김준엽 (2014). 경향점수를 활용한 남녀공학 효과 분석. **열린교육연구, 22**(1), 139-162.

베르비기에 마티유, 조영한 (2017). 케이팝 (K-pop)의 한국 팬덤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1,** 272-298.

비즈니스리포트 (2017.5.18.). 팬 문화의 좋은 사례… 빅뱅 태양 팬클럽, 미얀마 우물 기증. http://www.businessreport.kr/news/articleView.html?idxno=5285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상경아 (2009).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표집 방법에 의한 사교육 효과 분석. **교육평가**

연구, 22(3), 717-735.

소은경 (2004). **팬덤현상의 문화커뮤니케이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윤종신 팬클럽 수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경순 (2015). **청소년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연예인 우상화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미영, 임현정, 임해미, 박혜영, 구자옥 (2015). PISA 2012 결과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 영향요인 비교. **교육과학연구,** 46(4), 99-122.

신정이, 황혜원 (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2), 123-154.

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421-446.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윤은종, 김희수 (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105-120.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이윤정, 박성옥 (2001). 청소년의 대중음악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 12(2), 91-116.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89-214.

이정숙, 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이화정, 강석복 (2012). 선물조사에서의 무응답처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6), 1183-1194.

이희정 (2015). 도시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예측변인. **교육문화연구,** 21(2), 27-56.

임영식 (2002). 대중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우상화 현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9(3), 57-78.

임재민, 김대현 (2016). 팬덤 문화의 생산과 수용방식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2,** 315-335.

전수아, 한윤선 (2016).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팬덤 활동이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01-132.

전재일, 전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3**(3), 225-256.

전종희 (2005). **연예인 팬클럽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 가수 '비'의 팬클럽〈우박패밀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정민우, 이나영 (2009).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산업. **미디어, 젠더 & 문화, 12,** 191-240.

정재민 (2010).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1**(3), 91-119.

정현주 (2016). 청소년 팬덤문화에 관한 연구-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4), 163-175.

조아미 (1998). 청소년의 대중가요 가수 우상화 현상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5**(1), 1-20.

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40,** 201-226.

조영임, 이숙 (2011). 중학생의 정서지능, 연예인 우상화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535-547.

조은하 (2007). 청소년 게임문화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지, 5**(2), 106-113.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최미원, 조현희, 김영아 (2016).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팬덤활동, 공동체 의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349-358.

최형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한혜정 (2016).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 팬덤**

활동 형태 간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진구, 허효주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기초분석보고서**Ⅲ**-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추이 분석**(연구보고 14-R18-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Fiske, J. (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 A.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pp. 30-49). NY: Routledge.

Little, R., & Schenker, N. (1995). Missing data. In G. Arminger, C. C. Clogg, & M. E. Sobel (Eds.), *Handbook of statistical modeling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pp. 39-76). NY: Plenum Press.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CA: Sage.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 F., Congdon, R., & Du Toit, M. (2011).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HLM7)*. Lincolnwood,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Rosenbaum, P. R., & Rubin, D. B. (1985).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The American Statistician*, *39*(1), 33-38.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부록 1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타당도 검증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90% CI)
4차(중1)	6.332***	2	.907	.990	.010	.032(.005～.062)
5차(중2)	13.434**	2	.989	.968	.014	.053(.028～.081)
6차(중3)	23.968***	2	.993	.980	.012	.073(.049～.100)
7차(고1)	1.130	2	1.000	1.000	.004	.000(.000～.038)

**p<.01, ***p<.001

부록 1은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단일연도에 따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χ^2검증과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CFI와 TLI는 .90이상일 때, SRMR은 .08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지며, RMSEA는 .05이하는 매우 좋은 적합도를, .05～.08은 괜찮은 적합도를 가르킨다. 각 연도별 해당 변인의 검증 결과 χ^2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2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종단적 측정동일성 검증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Δdf	ΔCFI	ΔTLI	$\Delta RMSEA$
형태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	649.113***	98	.935	.920	.050					
측정동일성 (Metric Invariance)	657.039***	107	.935	.927	.048	7.926	9	.000	.007	-.002
절편동일성 (Scalar Invariance)	747.641***	116	.925	.923	.050	90.602***	9	-.010	-.004	.002

***p<.001

부록 2는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종단적 측정동일성 검증결과이다. 동일성 검증을 위해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차이검증과 함께 추가적으로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ΔCFI, ΔTLI, $\Delta RMSEA$를 비교하였다. 적합도 판단기준은 ΔCFI는 .010(Cheung & Rensvold, 2002)을, ΔTLI는 .020(Vandenberg & Lance, 2000)을, $\Delta RMSEA$는 .015(Chen, 200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의 순으로 검증한 결과 $\Delta\chi^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ΔCFI, ΔTLI, $\Delta RMSEA$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편동일성 검증에서 $\Delta\chi^2$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ΔCFI, ΔTLI, $\Delta RMSEA$의 값이 검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fandom activity participation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a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Lee, Jungmin* · Ch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fandom activity participation, as well as personal,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To achieve these aims, the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from 4th to 7th(2013~2016) was used.

To eliminate selection biases, propensity scores matching between the participation (treated) group and non-participation (control) group, was conducted and 656 cases in each group were finally matched. Following this matching,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As a result, participation in fandom activity was shown to have low initial value in terms of school adjustment. However, as time went by, participation in fandom activity and school adjustment showed a higher growth than non-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fandom activity, school adjustment, propensity score matching,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투고일: 2017. 12. 11, 심사일: 2018. 3. 12, 심사완료일: 2018. 3. 23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